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동부권 주민 의료서비스 향상

전주천·오수천, 국가하천되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
남원의료원으로 파견 진료

안과·감염내과, 내년부터
매주 1회 진료 서비스 제공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 국립중앙의
료원 의료진이 파견돼 진료에 이취지
게 돼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
스 향상이 기대된다.

전북도는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
관영 도지사와 주영수 국립중앙의료
원장, 오진규 남원의료원장 등이 참석
한 가운데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 파
견진료를 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2년 공공병원인
남원의료원 등 전북 도내 공공의료의
발전은 꾀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과 지방의료원의 협력체계를 구축,
공공의료 성공모델을 발굴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맺
은 '전라북도 공공의료 발전 협약'의
결실이다.

이날 협약은 전국 최초로 지역내 필
수의료 제공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의사를 파견 진료하는 것으로 안과와
감염내과 2개 과이며, 매주 1회 진료
가 이뤄질 예정이다.

남원의료원은 그동안 진료과목 중
안과는 지난해부터 휴진해 의사 구인
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감염내과



28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파견 진료 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오진규 남원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는 코로나19 이후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협약에 따라 남원의료원은 오는
2024년 1월 부터 매주 1회 국립중앙의
료원 소속 전문의가 안과를 시작으로
2월에는 감염내과를 추가 진료개시 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파견진료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가
까운 곳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함

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혜
택을 누릴 수 있게 돼,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건강 보호와 효율적인 진료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김관영 도지사는 "국립중앙의료원
의사가 지방의료원에 파견진료를 하
는 것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시범사
업이다. 지역주민에게 필수요료를 제
공할 수 있어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

다"며, "남원의료원이 동부권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남원의료원을 성공
모델로 군산의료원, 진안의료원까지
확대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의
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의료공백이 생
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
였다. /김재훈 기자

환경부 발표... 17개 시·도 20곳 중 도내 2곳 승격

전북도는 환경부에서 발표한 국가하
천 승격대상지에 전주천, 오수천이 선
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홍수방어 기반시설의 획
기적 확대'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하천
의 국가하천 승격 대상지 20개소를 발
표했으며, 도내 전주천, 오수천이 국가
하천으로 승격돼 국가재정을 통한 신
속한 정비가 가능해졌다.

이번 국가하천 승격으로 전주천, 오
수천 하천정비를 위한 약 2,500억원의
지방비를 절감하게 됐으며, 하천법 개
정에 따른 전주천, 오수천의 배수영향
받는 지방하천 14개소의 사업비를 포
함하면, 4,000억 정도의 국가재정을 투
자하게 된다.

전주천은 전주시의 시가지를 남동쪽
(한옥마을에서 북서쪽(롯데백화점)으
로 관통하는 도내 대표적인 도심하천
으로 유역 내 16만5,000명이 거주하고
있어 국가하천 승격 필요성이 지속 제
기돼 왔으며, 고수부지 정비, 수생태
복원, 상판저수지 등을 활용한 하천유
지용수(유량) 확보를 통한 도심 속에
서 시민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
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중
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수천은 도내 지방하천 중 연장이
가장 긴 하천이나, 제방정비율은 17%
에 지나지 않고, 홍수 대응 능력이 상
대적으로 부족한 섬진강변 하류에 위
치해 지난 2020년 8월 섬진강의 배수
영향으로 제방을 넘치는 홍수가 발생
한 바가 있어 이번 국가하천 승격으로
극한강우에 대비한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졌다.

또한 남원, 임실, 장수 등 해당 시군
이 구간별로 관리하던 하천을 국가하
천 승격을 통해 효율적(일원화)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전북도에서는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승격기준에 적합한 대상지
를 발굴해 지속 건의해 왔으며, 특히
유역 내 인구, 홍수피해규모 등 전북
도에 불리한 '국가하천 승격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지역안배를 강력히 건의
해 이번 선정 기준에 반영됐다.

또한 전주시 등 시군과의 긴밀한 협
력과 전북지방환경청의 적극적인 지
원이 있어 이와 같은 성과를 이뤘다.

특히 김관영 도지사, 우병기 전주시
장,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 등 각
기관장들이 직접 전면에 나서고 김성
주, 김원덕, 이용호, 양영숙 국회의원
은 숨은 조력자로서 물 밑에서 큰 역
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생태·환경 자산
의 가치창출'은 민선8기 국정목표의
중요 전략으로, 이번 전주천, 오수천의
국가하천 승격으로 극한 강우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더욱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환경부, 유역청, 전주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환경과 산업·관광
요소를 접목한 도심정밀 하천을 만들
어 경제적 부가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
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지사가 직접 도정
주요현안에 발로 뛰는 등 적극 대응해
국가재정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
다. /김재훈 기자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 기업 연계 방안 '머리 맞대'

도·익산시·원광대, 심포지엄 개최... 전문가 의견 수렴

전북도는 28일 익산 원광보건대학교
WM관에서 전북 바이오산업육성을 위
해 지난 11월 제1차 포럼에 이어 제2
차 '기업 연계 방안 도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관련사진 3면)

전북도는 농생명산업을 중심으로 한
그린바이오 자원과 기반을 바탕으로
레드바이오까지 영역을 확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도전하고 전북 바이
오산업 육성을 통해 전북을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북도와 익산시,
원광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테
크노파크,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원광대학교 LINC 3.0 사업단이 공동주
관해 전북 바이오 경쟁력과 기관·기
업 연계 강화를 위해 바이오 관련 전
문가들의 발표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
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
를 모으고자 마련됐다.

전북에향본부 윤석정 총재와 전북대

안국찬 대외·취업부총장, 원광대학병
원 서일영 병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한국식품연구원 백형희 원장은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 식품분야 연계·협
력 전략 오가노이드 기반 바이오 소재
개발 플랫폼',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진
웅 원장은 '미래 바이오 산업의 활성
화를 위한 한의학의 역할' 등을 발표
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채수찬 교
수(전 KAIST 대외부총장, 전 국회의
원)를 좌장으로, 발표자 5명과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조인호 단장,
비투윈파트너스 김주연 대표, 에이템

즈 박상혁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는 패
널 토의가 진행됐다.

전북도는 이번 심포지엄이 오가노이
드의 초격차 제작기술을 이해하고 전
북 바이오 산업육성을 위해 기관과 기
업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에 많은 도움
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훈 기자

갑진년 새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독자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주매일 임직원 일동-
내년 1월 2일 신년호 발행합니다.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쿵20' 만족도 92.1%

96.1%가 "지속 이용 의향"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쿵20'을 이용
한 전주시민 10명 중 9명이 도서구입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서비스에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7일
간 '책쿵20' 서비스 가입자(2,853명)와
참여서점(47곳)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
시한 결과 응답자의 92.1%가 서비스
이용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96.1%가 앞으로
도 꾸준히 책쿵20 서비스를 이용할 의
사가 있다고 응답하고, 참여서점들도
95.7%의 만족도를 기록하며 이 제도가
시민 독서문화 확산과 지역서점 활성
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책쿵20'은 전주시민이 지역서점에
서 책을 구매할 때 정가의 20% 할인
혜택과 함께, 12개 시립도서관에서 대
출하고 반납한 책 1권당 50 포인트
(원)를 적립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2년 4개월 동안 2만3,000여명의
시민이 가입했다. /김재훈 기자

